

DVD CHOICE

혹 한쪽 구석에서 외로움에 떨며 당신의 손길과 시선을 기다리는 DVD를 알고 있는가?

살려주자! 이거요!
“이거요, 주삼!!”



영원한 테마, 관계

글 : 다큐멘터리 감독 이현정

이 세상 영화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영화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예술 장르에서도 동서고금 할 것 없이 몰두하고 있는 테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의 탐구이다. 인간의 삶을 오롯이 담아내면서 깊이 성찰하고자 하는 작품에서, 인간의 삶을 때론 힘들게 하고 때론 즐겁게 하는 관계의 여러 양상은 결코 빠질 수 없는 내용이다.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어떻게 불행을 느끼게 되는지, 어떻게 “우린 이대로 안 돼”, 혹은 “우리 잘 지내고 있잖아”라고 말 할 수 있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기 때문이다.

이번 추천DVD는 다양한 관계를 다룬 영화들 중에서 골라보았다. 관계란, 생겨나고 진전되고 변화하고 정리하는 모든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차분한 시선으로 지켜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예술 매체보다도 영화라는 틀이 적합하게 느껴지곤 한다. 다섯 편의 영화 속에 나타난 인간관계의 다섯 측면은 매우 다르면서도 깊은 어디에선가 매우 닮아 있다.

첫 번째 영화는 <헤드윅>과 <숫버스>로 유명한 존 카메론 미첼 감독의 <래빗홀(Rabbit hole, 2010,미국)>이다. 그의 전작들과는 사뭇 다른 질감의 영화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들을 사고로 잃은 젊은 부부 베카와 하우위,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고의 당사자인 소년 제이슨이 책임과 위안 사이에서 나름대로의 슬픔을 견뎌가는 이야기이다. 부부에게 있어서 제이슨은 아들을 죽게 한 원인이다. 아들의 죽음 이후 일상이 온통 어긋나버리고 위태롭게 살아가던 베카가 오히려 제이슨과 교감하게 되고, 의연하게 잘 버티고 있는 듯했던 하우위가 제이슨에 대한 분노로 평정을 잃게 된다. 부재하게 된 관계를 이겨내며 슬픔을 통과하는 데는 저마다의 방법이 있는 법이다. “래빗홀”이란 제이슨이 완성해서 베카에게 주려던 그림책의 제목인데, 지금 이 곳에서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통로를 말한다.

두 번째 영화는 하비에르 마리스칼, 페르난도 트루에바, 토노 에란도 감독의 애니메이션 <치코와 리타(Chico & Rita, 2010, 스페인, 영국)이다. 애니메이션이 결코 아동용 장르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새삼 확인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여성의 헤어누드가 등장하지만 애니메이션이라서인지 꽤 자연스럽게 천연덕스럽기까지 하다(그린 거잖아!). 이것은 재즈 피아니스트인 치코와 가수인 리타의 사랑 이야기이자 동시에 이별 이야기이다. 함께 있을 때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헤어져 있을 때는 죽도록 그리워하는, 지켜보기에도 힘든 그런 '징한' 관계가 있다. 치코와 리타는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고, 쿠바 혁명이라는 시대의 사건은 다시 만나야 하는 이 두 사람을 47년간이나 헤어져 있게 만들었다. 영화 전체에 흐르는 흑인 재즈의 선율은 놓칠 수 없는 덤이다.

세 번째 영화는 린 램지 감독의 <케빈에 대하여(We need to talk about Kevin, 2010, 영국)>이다. 근래 개봉한 <설국 열차>로 인해 한국에서 지명도가 부쩍 높아진 영국 배우 킬라 스윈튼이 주인공이다. 자유로운 영혼이던 에바와 그녀가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갖게 된 아들 케빈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엄마와 아들이지만 좀처럼 교감도 소통도 할 수 없는 이 관계는 끝내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을 일으키게 된다. 그 비극의 이유는 케빈이 태어나 살았던 16년을 지켜보지 않으면 좀처럼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엄마와 아들이란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행복하다고 말하는 관계이다. 그러나 서로 "행복한 적 없다"고 말하는 이 엄마와 아들. 왜 케빈은 가장 증오하는 엄마만을 세상에 남겨 놓은 것일까?

네 번째 영화는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고양이를 빌려드립니다(Rent a cat, 렌타네코, 2010, 일본)>이다. <카모메 식당>부터 감독의 전작이 모두 한국에 소개되었고 그녀의 작품 세계를 사랑하는 은근히 두터운 팬층을 갖고 있다. 인간들에게는 인기가 없고 고양이들에게만 인기 폭발인 사요코가 주인공이다. 마치 인간과 고양이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듯이 시작하는 이 작품은 사실 고양이를 매개로 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녀에게서 고양이를 대여해가는 사람들은 모두 외롭거나, 사람에게서 상처받았거나, 사람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 저마다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고양이를 빌려가는 것이다. 고양이는 아주 좋은 친구이자 아주 좋은 보상이 되어 주는 것 같다. 그러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중학교 동창을 만난 사요코가 "고양이로도 메울 수 없는 구멍이 있는 걸까?"라고 물을 때, 잊을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근원적인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다섯 번째 영화는 미국의 로맨틱 코미디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을 사람들에게 뜻밖의 쾌감을 선사할 만한 작품으로, 데이빗 러셀 감독의 <실버라이닝 플레이북(Silver Linings Playbook, 2012, 미국)이다. 한마디로 나사가 풀려도 제대로 풀려버린 남자와 여자의 로맨스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조니 뎀이 도저히 빠져들지 않을 수 없게 사랑스러웠던 오래 전 영화, <베니와 준(1993, 미국)>의 준과 샘 커플에 비해, 이 영화의 팻과 티파니 커플은 오히려 더 현실감 있어서 애뜻하기까지 하다. 이 정신 나간, 정말로 정신병원 입원 경력이 있는 팻과 주변으로부터 미친 여자 소리를 들으며 고립된 티파니는 처음부터 한눈에 반하거나 하는 따위의 달달한 로맨스를 보여주지 않는다. 희한하게도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어느 틈엔가 어이없게 거대해진 마지막 내기에서 두 사람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 정신병의 경계란 나에게서 멀지 않겠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 미친 사람들끼리의 관계의 핵심은 '미쳤다'에 있지 않은 것이다.

DVD NO. 2148

레빗홀



DVD NO. 2148

작품명 : 레빗 홀 (Rabbit Hole, 2010, 미국)

감독 : 존 카메론 미첼

감독 필모그래피 : <헤드윅(2000)>, <숫버스(2006)>

<시규어 로스, 발타리(2012)>

베카와 하우위는 남부러울 것 없는 중산층의 젊은 부부다. 그러나 그들은 8개월 전 어린 아들 대니를 사고로 잃었고 그 후 둘의 생활은 크게 달라졌다. 베카는 이웃과 친구들의 호의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녀의 여동생이 임신한 사실과 그 사실을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조차 불만스럽다.

하우위는 매일 밤 대니가 살아 있을 때 찍었던 비디오를 보는 것이 낙이다. 그러나 이것은 혼자만의 위안이고 베카는 이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몰래 보아야 한다. 아이를 먼저 보낸 부모들의 모임에 가서도 베카는 어이없이 불화를 만들고 하우위는 그것을 수습하느라 곤혹스럽다. 베카의 날카로운 신경은 어느 누구도 누그러뜨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어느 날 운전 중 하우위는 거리에서 달리는 스쿨버스 안에 앉아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하고 이끌린 듯 버스를 따라간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 소년의 뒤를 밟아 지켜보곤 한다. 그러다가 도서관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 흠칫 놀란다. 그 소년은 바로 대니의 죽음과 관계가 있다. 사고가 일어났던 날 대니는 집에서 기르던 개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제이슨은 서툰 솜씨로 운전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 나온 개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고 불시에 대니를 치어버린 것이다. 베카와 제이슨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죄책감과 위안을 나눈다. 자신을 위로해주고 싶어 한 어느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지 못했던 베카가 아들을 죽인 책임이 가장 큰 제이슨과는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하우위는 부모 모임의 개비와 마리화나를 나눠 피우며 공허한 마음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수록 하우위는 베카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자신을 추스린다. 그리고 베카가 원했던 대로 집을 팔고 이사를 가자고 제안한다.

일은 누구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집은 팔리지 않고, 제이슨은 자신이 그린 만화책을 베카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베카의 집으로 찾아온다. 그리고 하우위는 제이슨과 베카가 그간 만나왔었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화를 낸다. 베카와 하우위는 서로 사랑하면서도 좀처럼 만나지 못하는 마음의 길을 확인하며 절망한다. 이 부부는 과연 대니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래빗 홀 (Rabbit Hole)



참고

* [네이버영화](#)

* [씨네 21](#)

영원히 함께할 두 사람, 잊지 못할 사랑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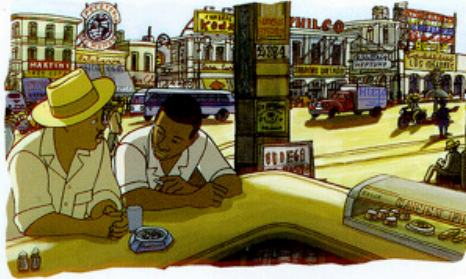
★★★★★

"매혹적인 영상미와 짜릿한 음악,
놀랍도록 아름다운 영화가 탄생했다!"

-The Hollywood Reporter

"라틴 재즈의 열정과 강렬한 러브스토리에 취하다!"

-Little White Lies



Created by 페르난도 트루에바, 하비에르 마리스칼 and 베보 발데스



치코와 리타

DVD NO. 2156

작품명 : 치코와 리타 (Chico & Rita, 2010, 스페인, 영국)

감독 : 하비에르 마리스칼, 페르난도 트루에바, 토노 에란도

감독 필모그래피 : <투 머치(1996)>, <꿈속의 여인(1998)>

<칼레 54(2000)>, <댄서와 도둑(2009)>, <아티스트 앤 더 모텔(2012)>

치코와 리타

(Chico & Rita)



참고

* [씨네21](#)

하바나의 거리, 한 할아버지가 쓸쓸히 걷고 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빈 집에 돌아와 라디오를 듣는데 “치코와 리타”라는 노래가 흘러나온다. 할아버지는 50년 전의 하바나로 돌아가 회상에 빠진다.

치코는 젊고 재능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로서 많은 여자와 즐기며 살고 있다. 어느 바에서 문득 들려오는 노래 소리에 눈을 돌려보니 무대에서는 노란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가 바로 리타이고 이후 치코는 계속 리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쌀쌀맞게 굴던 리타도 치코에게 반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치코가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것을 본 순간이었다. 둘은 그날로 열렬한 사랑에 빠져버렸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아침 그 사랑은 이별을 고하게 되는데, 치코의 옛 여자가 찾아오면서 리타가 떠나버린 것이다. 치코는 상심에 빠지고 친구인 라몬이 리타를 찾아가 치코와 함께 음악경연에 나가 달라고 부탁을 한다. 리타의 화가 풀린 것은 아니지만 리타는 돈 때문이라고 못 박으며 함께 나가기로 한다.

그 경연에서 우승하면서 치코와 리타는 멋진 듀오로 승승장구한다. 그런데 뉴욕에서 온 매니저가 리타에게 스타로 만들어주겠다고 뉴욕으로 갈 것을 제안한다. 당연히 리타는 치코와 함께가 아니라면 갈 수 없다고 거절한다.

그 둘은 함께 있을 때는 서로 오해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사랑에 그리워하는 운명일지도 모른다. 사소한 오해들이 연속되다가 결국 리타는 혼자 매니저를 따라 뉴욕으로 가고 치코는 하바나에 남는다. 이후 둘의 생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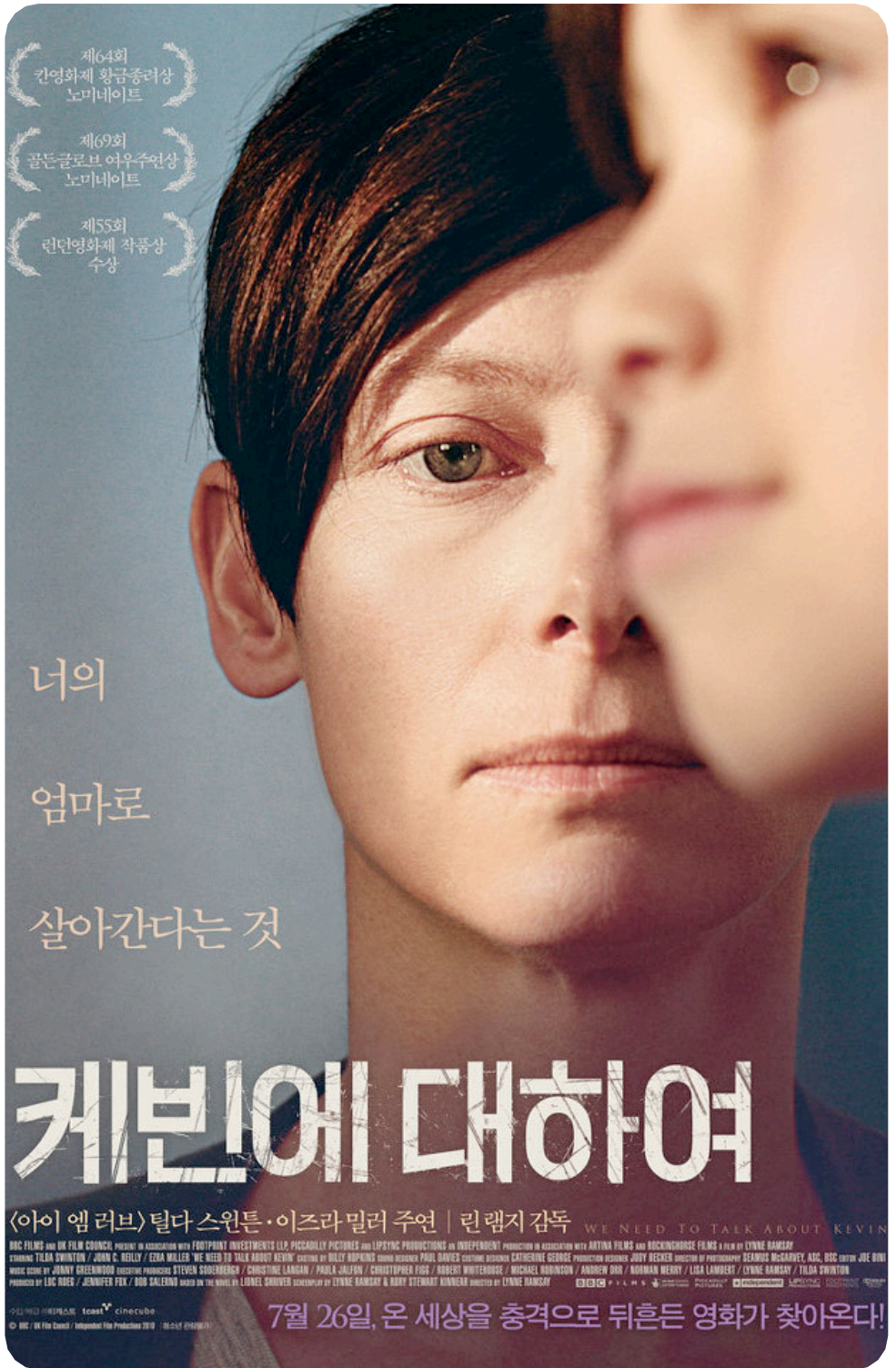
크게 달라진다. 리타가 뉴욕에서 크게 성공을 거둔 것이다. 리타를 못 잊는 치코도 라몬과 함께 뉴욕으로 향한다.

뉴욕에서 만난 치코와 리타, 그러나 마음을 합하기에는 아직 오해가 많이 남은 것 같다. 화해하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간다. 리타는 계속 공연에 영화에 스타의 길을 걷지만 치코는 싸구려 피아노연주자로 여기저기 전전할 뿐이다. 그러다 어느 파티장에서 스타와 연주자로 만난 두 사람은 불현듯 다시 사랑을 느낀다. 그날 밤 함께 보낸 두 사람은 이제 편히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장면을 목격한 리타의 매니저는 치코와 리타를 떼어놓기 위해 라몬의 기획사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시간은 맥없이 흘러서 리타는 할리우드에서 스캔들이 나고 치코는 다른 여자들을 만난다. 그러다가 옛날 리타를 처음 만나서 그녀를 위해 작곡했던 곡에 다른 제목을 붙여 발표한다. 그것이 방송을 타게 되고 리타는 그 곡을 듣고 치코를 찾아온다. “릴리가 누구지?” “내 손을 찾아주던 강아지 이름이야.” 그날에도 어김없이 긴 키스를 나눈다.

이렇게 수없이 이별과 재회를 반복한 두 사람, 거듭 만날수록 둘의 마음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도 왜 50년 가까이 미국과 쿠바에 헤어져 살아야 했을까? 노인이 된 두 사람이 라스베이거스의 작은 모텔에서 다시 만날 때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재회가 될 수 있을까?

케빈에 대하여



DVD NO. 2269

작품명 : 케빈에 대하여 (We need to talk about Kevin, 2010, 영국)

감독 : 린 램지

감독 필모그래피 : <취잡이(1999)>, <모번 켈러의 여행(2002)>

<스위머(2012)>

에바는 자유로운 여성이다.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한껏 자신의 시간에 몰두한다. 그 어느 것도 그녀를 무력하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느 날 남자친구인 프랭클린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 비록 예상치 않은 일이었지만 자연스럽게 그와 함께 살면서 아이를 낳는다. 첫 번째 아이 케빈은 그렇게 태어났다. 아이는 끝도 없이 울어대고 에바는 그를 제대로 다룰 줄 모른다. 자유를 만끽하던 에바의 생활이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길을 걷다보면 듣게 되는 잔디 깎기나 공사장의 드릴 같은 참을 수 없는 소음과 케빈의 울음소리가 다르지 않다. 지친 에바는 케빈에게 약을 먹여 재운다.

케빈이 말을 하게 되면, 에바와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까? 그러나 케빈은 말을 할 때가 되었는데도 말을 하지 않는다. 에바의 말소리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걱정이 된 에바는 병원에 케빈을 데려간다. 그런데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만 할 뿐이다. 에바는 아기에게 약을 많이 먹여서 이런 증상이 보이는 것일까 걱정이 된다.

드디어 케빈이 말을 한다. 케빈은 결코 말을 할 수 없거나 말이 느린 아이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에바와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는다. 프랭클린에게는 그저 귀여운 어린 아들이지만 에바에게는 작은 악마가 된다. "익숙한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달라. 엄마는 나에게 익숙하잖아." 서로 교감하지 못하는 에바와 케빈.

케빈에게 여동생이 생기고 케빈은 새

로운 취미가 생겼다. 로빈 후드처럼 활을 쓰는 것이다. 케빈이 엄마에게 상냥하게 굴기 시작하고 관계가 변하는가 기대를 품을 무렵, 케빈은 장난감 화살을 엄마에게 겨눈다. 케빈은 변하지 않았다.

10대가 된 케빈은 아빠와 여동생에게 무난하게 굴지만 사실 그들도 좋아하지 않는다. 여동생 실리아의 햄스터를 수채 구멍에 버렸고, 그것을 알게 된 에바는 공포까지 느낀다. 사이가 좋았던 에바와 프랭클린의 관계도 삐걱대기 시작하고, 어느 날 이혼을 의논하는 둘의 대화를 엿들은 케빈은 오해를 하게 된다.

16살 생일을 얼마 앞둔 케빈은 평소 즐기던 활과 화살을 들고 학교에 간다. 그리고 케빈의 학교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에바에게 들린다. 그날 이후 에바는 모든 것을 잃는다. 남편도 딸도 잃고, 이웃은 그녀에게 증오를 퍼붓고, 아들은 감옥에 간다.

에바는 케빈에게 묻는다. "왜 그랬니?" 케빈이 대답한다. 어찌면 처음으로 에바에게 솔직한 마음을 얘기한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

케빈에 대하여

(We need to talk about Kevin)



참고

* [네이버 영화](#)

DVD NO. 2364

고양이를 빌려드립니다



제62회
베를린영화제 초청작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

「카모메 식당」「안경」「토일렛」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

고양이를 빌려드립니다

12월 대개봉!

脚本・監督 ● 荻上庸
 エグゼクティブ・プロデューサー ● 大島渚 | 室川日出久 | 藤多雄
 プロデューサー ● 久保田義一 | 小室秀一 | 本城
 撮影 ● 岡部一幸 | 熊明 | 松尾文雄 | 録音 ● 木野武 | 美術 ● 富田和
 スタylist ● 藤井敦子 | 加藤和恵 | ヘアメイク ● 宮田靖士 | 久野
 編集 ● 菅原慎一 | スクリプター ● 天路芳美 | 音楽 ● 伊東
 音楽プロデューサー ● 荻原良亮 「レンタルネコ」オリジナル・サウンドトラック ● V.
 コピー ● 太田恵美 | 写真 ● 馬場わかな | 米谷学 | エンディングイラスト ● くるねこ
 制作 ● YAP | S S 日テレパブリシティス・カフェ | スールキートン | Fehool | J&I
 制作プロダクション ● パラダイス・カフェ | 配給 ● スールキー
 12월 개봉! ● 11월 14일 (수) 개봉! ● 12월 12일 (수) 개봉! ● 2012 렌탈네코제작

DVD NO. 2364

작품명 : 고양이를 빌려 드립니다 (Rent a cat, レンタネコ, 2012, 일본)

감독 :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 필모그래피 : <요시노 이발관(2004)>, <카메모 식당(2006)>, <안경(2007)>, <토일렛(2010)>

고양이를 빌려 드립니다

(Rent a cat)



참고

* [네이버 영화](#)

작은 손수레에 고양이들을 싣고 다니며 “고양이를 빌려드립니다”라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녀. 그녀는 수많은 고양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 2년 전 함께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줄곧 혼자다. 생전의 할머니가 그랬듯 그녀에게는 고양이들이 늘 모여든다. 인간에게는 인기가 없고 고양이들에게는 인기 폭발이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결혼이 하고 싶다.

그녀의 고양이대여업의 첫 번째 손님은 할머니이다. “지금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라며 역시 늙은 암컷 고양이를 빌려간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면서 외로움의 구멍이 뺨 뚫려버린 할머니는 남편 생전에 함께 기르던 고양이 모모코의 이름을 붙여준다. 그런데 모모코가 다시 돌아온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인데, 할머니가 그만 돌아가신 것이다. 쌀쌀맞은 아들의 독촉에 모모코를 데려왔지만 할머니의 푸딩 구멍이 전부 메워져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마음을 놓는다.

두 번째 손님은 역시 혼자 사는 아저씨. 그는 단신부임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중인데 다시 본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웬 외로움일까? 아빠가 돌아온다는데도 기뻐하지 않는 딸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가족에게 되돌아갈 때까지 빌리기로 계약했지만, 아예 자신이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

세 번째 손님은 렌터카 사무실의 젊은 여자다. 12년째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업무를 보며 무료하고 지루하게 살아가고 있다. 모든 것에, 모든 사람에 등급을 매기는 것이 습관이고, 자기 자신은 등급이라고 덤덤하게 말한다. 그녀에게는 어떤 즐거움도 없지만 자신의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고양이에게는 왓치 첫눈에 반한다. 그리고 그 고양이를 빌려가자마자 재미라곤 하나 없던 그녀의 일상이 바뀌기 시작한다.

네 번째 손님을 찾으러 나간 길에 만난 사람은 중학교 동창인 요시자와이다. 요시자와와 그녀는 늘 양호실에서 만난 사이인데, 얽매이는 것도 없고 친구도 없던 그녀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친구가 없어도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다고 말한다. 함께 맥주를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간 후 밤늦게 경찰들이 그녀의 집에 찾아온다. 상습 절도범인 요시자와를 찾기 위해서였다. 맥이 풀린 그녀는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 “할머니, 고양이의 다정함으로도 메울 수 없는 구멍이 있는 걸까?”

DVD NO. 2377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아카데미 8개부문 노미네이트
 여우주연상 | 남우주연상 | 남우조연상 | 남우조연상 | 최우수감독상 | 각색상 | 편집상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수상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SILVER LININGS PLAYBOOK

STORY BY DANIEL COREY | SCREENPLAY BY DANIEL COREY & ANTHONY LINGUAGLIA | MUSIC BY JOHN WILLIAMS | COSTUME DESIGNER JACQUELINE DURAND | HAIR AND MAKEUP DESIGNER JACQUELINE DURAND | PRODUCTION DESIGNER JACQUELINE DURAND | EXECUTIVE PRODUCERS JACQUELINE DURAND AND DANIEL COREY | PRODUCED BY DANIEL COREY AND ANTHONY LINGUAGLIA | WRITTEN BY DANIEL COREY | DIRECTED BY DAVID O. RUSSELL

2월 14일, 거침없이 사랑하자!

DVD NO. 2377

작품명 :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Silver Linings Playbook, 2012, 미국)

감독 : 데이빗 O.러셀

감독 필모그래피 : <스팽킹 더 멍키(1994)>, <쓰리 킹즈(1999)>, <아이 하트 허커비스(2004)>, <파이터(2010)>

팻은 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다. 그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눈길은 차갑다. 아내 니키의 외도를 목격하고는 극심한 감정 기복과 망상으로 조울증 진단을 받았었고, 예전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던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아내에게는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이지만 팻은 니키와 다시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 믿고 니키를 찾아다닌다.

팻의 친구인 로니는 팻에게 다른 여자를 소개해 준다. 처제인 티파니인데 남편을 얼마 전에 잃고 직장까지 잃은 처지였다. 티파니에게 매력을 느꼈지만 팻은 그녀의 접근을 경계한다. 그러나 티파니는 어떤 일인지 조깅할 때마다 마주치곤 하는데, 티파니와 친해지라는 정신과 의사의 조언을 듣고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다.

이때 티파니는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는데 자신이 팻의 편지를 니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직장에서 해고당했는가를 말해 준다. 팻은 왜 사람들이 티파니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지 알 것 같다. 남편이 죽은 후 슬픔을 견디는 방법이 매우 특이했던 것이다. 둘의 대화는 급속도로 진전된다.

그러나 서로를 스스로보다 더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는 두 사람은 쉽게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한다. 그러다가 티파니는 팻에게 자신의 댄스 파트너가 되어 달라고 한다. 편지를 니키에게 전하고 싶은 팻은 그에 상응하는 부탁을 들어주는 셈 치고 그날부터 티파니에게 댄스를 배우기 시작한다.

팻의 아버지는 미식축구의 광팬이다. 그리고 형은 성공한 변호사이다.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된 팻이 형과 사이좋

게 지내기를 바라는 아버지는 팻에게 형과 함께 미식축구장에 가라고 한다. 아버지는 그 경기에 내기를 걸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팻은 어마어마한 내기에 휘말리게 된다. 티파니와의 댄스대회에서도 5점 이상을 받드시려면 아버지의 파산을 막을 수 있다. 늘 티격태격하고 감정이 격해지는 팻과 티파니는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댄스대회에서 무사히 춤을 끝마칠 수 있는 걸까? 니키와는 결국 만나지도 못하고 헤어지게 되는 걸까? 그 모든 것이 댄스대회 당일에 달려 있다.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Silver Linings Playbook)



참고

- * [네이버 영화](#)
- * [씨네 21](#)